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Aggression through Cooper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Empathy

1차원고접수: 2023.07.10. 수정원고접수: 2023.08.28. 최종게재결정: 2023.09.15.

한세영¹ · 유설희² · 조연수³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³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객원 교수

Han, Sae-Young¹

Yoo, Seolheui²

Cho, Yeon Soo³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²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³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2,275명(남학생 1,145명, 여학생 1,1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PROCESS macro version 4.2의 Model 4와 Model 7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에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도 높아졌고 이는 낮은 공격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여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개효과는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와 협동심을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청소년, 자아존중감, 협동심, 인지적 공감, 공격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2,275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4 and Model 7 of SPSS PROCESS macro version 4.2. As a result,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aggression was confirmed.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operation.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cooperat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cognitive empathy, the greater the mediating effect. This research confirms the 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aggression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cooperation. By demonstra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the study empiricall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th self-respect and understanding others simultaneously in addressing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ounseling to mitigate aggression in adolescents.

Keywords adolescents, self-esteem, cooperation, cognitive empathy, aggression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유설희 (Yoo, Seolheu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mail. shee05@nypi.re.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만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3)에 의하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컫는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2021년 기준 66,697명으로, 2014년 대비 21.1% 감소하였으나 촉법소년의 수는 2014년 7,104명에서 2021년 12,680명으로 증가하였다. 강력(흉악)범죄율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 행동이 낮은 연령층으로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강력(흉악)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이전 해 대비 0.6%p 증가하였고,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피해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재난 상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불안감과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소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청소년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교육적 개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개인 내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Rosenberg, 1965). 높은 자존감은 바람직하고 적응적이며 좋은 적응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eilbrun, 1981; Kahle, Kulka, & Klingel, 1980; Taylor & Brown, 1988; Whitley, 1983),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이상아, 장혜인, 2018; 차은진, 2020; 홍명숙, 어주경, 2013;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Teng, Liu, & Guo, 2015). 즉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타인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상반되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Barry, McDougall, Anderson & Bindon, 2018; Baumeister & Boden, 1996; Salmivalli, 2001)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Baumeister와 Boden의 연구(1996)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부족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해석되어 왔는데,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Baumeister, Tice, & Hutton, 1989; Tice, 1991, 1993),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De La Ronde & Swann, 1993; Swann, 1987; Swann, Griffin, Predmore, & Gaines, 1987).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때로는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한세영, 2010)에서도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보다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오히려 타인을 향한 부

정적 행동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개인적 역량으로 협동심(cooperation)을 꼽을 수 있다. 협동심은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통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Brownell, Ramani, & Zerwas, 2006),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대표적인 하위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Eisenberg & Mussen, 1989). 협동심이 높은 청소년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고려하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보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는 낮은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동심은 앞서 언급된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라면 협동심은 또래와 동료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협동심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도희, 2020; 안지영 등, 2021; 전란영, 2020). 또한, 높은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낮은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수진, 장형심, 2019). 따라서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비일관적인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 공격성에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열등해 보이는 다른 대상에 대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으며, 양심의 가책 없이 곤충이나 쥐를 죽이는 것처럼 열등한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다(Myers, 1980).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 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긍정적 자기평가가 오히려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로 타인보다는 자신의 심리와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아중심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Erickson, 1968).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역량 뿐만 아니라 친밀한 우정, 매력 등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Harter, 1999),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긍정적인 변수도 공감의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Crocetti et al., 2016). 이러한 점에서 공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며 정서적 및 인지적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Davis, 1996; Batson, 2009; Decety & Cowell, 2014).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자신의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을 의미하고,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의 공감을 의미한다(Chandler, 1974). 특히,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 관점, 동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협동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Gilbert(2009)는 협동

심을 두고 한 개인이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공유된 의도는 개인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협동심이 발휘되는 상황은 그가 속한 집단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개인적 목표와 부합함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공동의 목표가 개인적 목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인 행동은 가장 높은 측면의 인지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Fiebich, 2019).

그러나 인지적 발달단계 상 초기 청소년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제3자적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므로(Selman, 1980), 청소년기의 인지적 공감은 발달상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데에 능숙한 반면, 어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의 차이는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한 자아존중감과 높은 인지적 공감 수준을 함께 갖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 협동이나 협력과 같은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이더라도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을 때에는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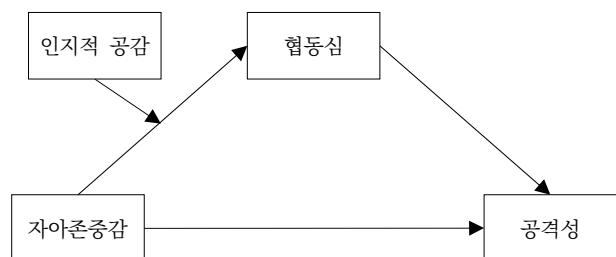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2,27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의 변화를 맞닥뜨림과 동시에 새롭게 만나는 또래와 교사 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과제가

요구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초·중학교의 전환기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인효연, 2018). 이렇게 개인이 내·외적 환경에서 겪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공격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1,145명(50.3%), 여자 청소년이 1,130명(49.7%)이었다. 또한, 학교를 기준으로 한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가 977명(43.0%), 중소도시가 926명(40.7%), 읍면지역이 370명(16.3%)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수정·보완한 10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Baron-Cohen, Wheelwright, Spong, Schill과 Lawson(2001)의 The Folk Psychology Test를 한국노동연구원(2017)의 한국노동패널 제20차 부가조사에서 활용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사람의 눈 사진을 보고 해당 상태가 슬픔이나 지

루함, 화남, 신남 등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눈 사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단어를 맞게 판단한 경우 1점, 틀린 경우에는 0점으로 코딩되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총점을 구하여 인지적 공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2이었다.

3) 협동심

청소년의 협동심은 김태준, 오민아와 이영훈(2015)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에서 활용한 협동 영역의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협동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협동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김지경 등(2010)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수정·보완한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 6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를, Model 7을 통해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38, p < .001$), 인지적 공감($r = -.06, p < .01$) 및 협동심($r = -.24, p < .001$)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자아존중감이나 인지적 공감, 협동심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졌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36, p < .001$) 및 인지적 공감($r = .14, p < .001$)은 협동심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나 인지적 공감이 높은 청소년은 협

동심도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인지적 공감 간에도 정적인 상관($r = .14, p < .001$)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인지적 공감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beta = -.34,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수록 공격성 정도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협동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eta = .36, p < .001$), 협동심은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2, p < .001$)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협동심이 높았고, 이는 낮은 공격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청소년일수록 타인과 더 많이 협동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공격성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548, 95\% \text{ CI } [-.0767, -.0348]$)는 신뢰

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N = 2,275$)

	1	2	3	4
1. 자아존중감	-			
2. 인지적 공감	.14***	-		
3. 협동심	.36***	.14***	-	
4. 공격성	-.38***	-.06**	-.24***	-
<i>M</i>	2.94	15.53	2.91	1.88
<i>SD</i>	.46	5.55	.53	.57
최솟값	1.10	1.00	1.00	1.00
최댓값	4.00	28.00	4.00	4.00

** $p < .01$. *** $p < .001$.

표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

(N = 2,275)

경로	B	β	S.E.	t	R ²	F
자아존중감 → 협동심	.42	.36	.20	18.58***	.13	345.23***
자아존중감 → 공격성	-.42	-.34	.03	-16.39***	.16	214.16***
협동심 → 공격성	-.13	-.12	.02	-5.83***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자아존중감 → 협동심 → 공격성	-.0548	.0109	-.0767	-.0348

*** $p < .001$.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B = .71, p < .001$)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B = .06, p < .001$) 협동심은 더 높아졌으며, 청소년의 협동심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인지적 공감이 낮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 = -.02, p < .001$). 또한,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을 사용하여 인지적 공감의 어느 영역이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

을 실시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의 그래프에서 X축은 자아존중감을, Y축은 협동심을, 파란색 실선은 낮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지적 공감, 빨간색 실선은 중간 수준(평균)의 인지적 공감, 초록색 실선은 높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지적 공감을 가리킨다. 인지적 공감의 세 수준(-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에서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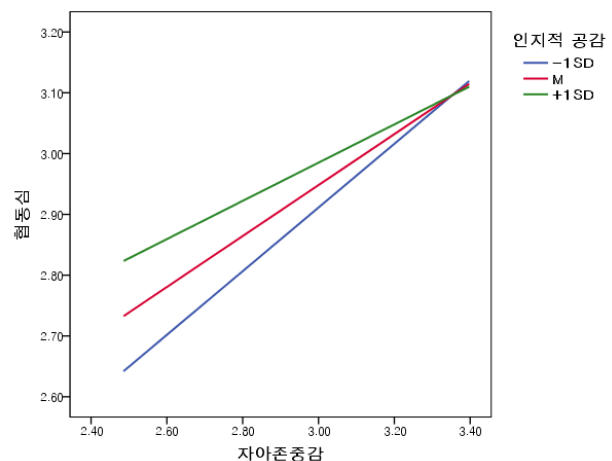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에 대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N = 2,275)

변수	B	S.E.	t	R ²	F
자아존중감(A)	.71	.08	9.44***	.15	131.16***
인지적 공감(B)	.06	.01	4.94***		
A × B	-.02	.00	-4.28***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조건부효과					
	B	S.E.	t	R ²	F
-1SD	.52	.04	14.57***	.01	18.28***
M	.42	.02	18.33***		
+1SD	.34	.03	10.20***		

*** $p < .001$.

존중감과 협동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평균값 $-1SD(B = .52, p < .001)$ 일 때와 평균값($B = .42, p < .001$), 평균값 $+1SD(B = .34, p < .001)$ 일 때,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협동심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따른 기울기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게 커졌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 때, 협동심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협동심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macro의 모형 7을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와 매개지수 추론 검정의 결과물(부트스트랩 신뢰구간 포함)을 확인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0025이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95% CI [.0011, .0042])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4 참조). 다음으로, 간접효과가 인지적 공감의 어떤 영역에서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상호작용을 탐색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이 낮을 때($B = -.0685, CI [-.0964, -.0419]$)일 때와 평균인 경우($B = -.0548, CI [-.0759, -.0343]$), 높을 때($B = -.0411, CI [-.0590, -.0252]$) 모두 유의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의 값이 커질수록 매개효과의 값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아지고, 이는 공격성의 감소로 이어지는 매개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이러한 관계를 유의미하게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공감의 수준에 따라 다른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부적관계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이상아, 장혜인, 2018; 차은진, 2020; 홍명숙, 어주경, 2013; Donnellan et al., 2005; Teng et al., 2015)와 일치하였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타인 또한 바라보아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에 더하여 이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에게 높은 도덕적 기대를 하고 내면화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 성향을

표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2,275$)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인지적 공감	.0025	.0008	.0011	.0042
인지적 공감의 값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				
	<i>B</i>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1SD$	-.0685	.0140	-.0964	-.0419
<i>M</i>	-.0548	.0107	-.0759	-.0343
$+1SD$	-.0411	.0087	-.0590	-.0252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 수준도 높으며, 이에 따라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협동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협동심이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공격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밝힌 여러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도희, 2020; 김수진, 장형심, 2019; 안지영 등, 2021). 이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과 협동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도 높아진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아존중감을 갖추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내적작동 모델로 작용함으로써 공통된 목표를 가진 동료들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갖추는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협동심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동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임을 고려하면(Brownell et al., 2006), 협동심은 동료에 대한 긍정적 시각뿐만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가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시각 또한 갖추어야 잘 발휘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또래와 함께 이루어나야 할 과업에서 또래를 향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더불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또래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수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협동심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은 낮아

진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또래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원만하게 상호작용하고자 노력하는 협동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협업에 방해가 되는 공격적인 태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낮은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수진, 장형심, 2019)를 참고해 볼 때, 협동심을 발휘하여 또래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한 팀에 속해 있다는 공동체의식이 성장하고 함께 협력하는 또래에게 애착이 형성되어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또래를 향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감소하게 되는 내적 과정이 작동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협동심과 같은 심리적 자원의 함양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협동심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공감은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인지적 공감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공격성 간의 매개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더라도 높은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이 낮으면 협동심 또한 낮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아지고, 이는 낮은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제3자적 조망수용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Selman, 1980)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인지적 공감의 발달 수준에 따른 개인차가 예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초기에는 개인적 우화나 상상의 청중과 같은 특유의 자아중심성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시각이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 단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시기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인지적 공감 수준에서 개인차가 존재하여 어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데에 능숙한 반면, 어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협동심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또래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한 대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타인과 협력하는 친사회적인 태도인 협동심이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자질임을 알려준다.

Crocetti와 동료들의 연구(2016)에서는 부모의 높은 관심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반사회적 행동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으나 공감 능력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이와는 상반되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변수인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협동심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된 의도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다를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심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한 Gilbert(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자질이자 덕목인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나는 청소년 초기에 인지적 공감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공감의 수준에 따라서 협동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지적 공감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인지적 공감능력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협동심을 낮추고 공격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높은 인지적 공감의 수준을 가진 경우에는 낮은 협동심이 공격성을 높이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내적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 질적연구(권현용, 김현미, 2009)에서는 가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왜곡된 피해의식, 자신감 없음, 외모 콤플렉스, 어눌하게 말함, 능력이 없음 등과 같은 낮은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식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협동심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추어 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더불어, 정서적 공감까지 포함하여 측정함으로써 청소년기의 협동심과 공격성 발달에서 각 영역별 공감이 기여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협동심을 측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협동심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장면과 발달적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함으로써 협동심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기존에 학습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 및 체육과 같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

로 학생 참여형 교육과 활동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후 더 충분한 협력활동을 경험한 청소년 중기까지 포함하여 협동심을 측정한다면 협동심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타인과 협력하는 친사회적인 태도의 발달과 타인을 공격하는 문제행동의 발달을 모두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역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역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내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타인에 대한 협동심을 높이고 나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밝혀 타인에게 협력하는 친사회적인 태도가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매커니즘임을 밝혔다. 이는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성 그 자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외에 협동심과 같은 친사회성의 함양을 위해 동시에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공감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밝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타인에게 협력하고자 하는 친사회적인 마음가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자원임을 함께 밝혔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나는 청소년 초기에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인 자아존중감과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함께 작용하여 또래와의 협업에서 협동심이라는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기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협동심이라는 친사회적 태도의 함양을 통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혀 청소년기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학교 내 또래관계에서 협동심을 강화하고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권현용, 김현미 (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동서정신과학*, 12(1), 1-12.
- 김도희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https://doi.org/10.14400/JDC.2020.18.5.485>
- 김세연, 정애경 (2019).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관계문제 군집 비교: 학교규모별 빈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협동·공감기술의 차이. *초등상담연구*, 18(1), 47-67.
<https://doi.org/10.28972/kjec.2019.18.1.047>
- 김수진, 장형심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공격성,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851-87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0.851>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완성, 정구철 (2016).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협동 및 공감기술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1), 399-408.
<https://doi.org/10.5392/JKCA.2016.16.11.399>
- 성현란, 성은현, 장유경, 정명숙, 박혜원, 이현진, 정윤경, 김혜리, 송현주, 유경, 유연옥 (2019).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또래관계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73-94. <https://doi.org/10.13049/kfwa.2021.26.2.4>
- 여성가족부 (2023). 2022년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상아, 장혜인 (2018). 좌절 상황에서 정신병질 및 자기애 성격특질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903-923.
<https://doi.org/10.17315/kjhp.2018.23.4.005>
- 인효연 (2018). 초, 중학교 전환기 아동의 성취가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4), 885-912.
<https://doi.org/10.15753/aje.2018.12.19.4.885>
- 전란영 (2020).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이 아동의 그릇을 매개로 아동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17-139.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1.117>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차은진 (2020).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10), 179-184. <https://doi.org/10.9708/jksci.2020.25.10.179>
- 한국노동연구원 (2017).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한세영 (2010).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에 관련된 자존감,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인간발달연구*, 17(1), 125-143.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911>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
- Barry, C. T., McDougall, K. H., Anderson, A. C., & Bindon, A. L. (2018). Global and contingent self-esteem as moderators in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 narcissism, callous unemotional traits,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1-5. <https://doi.org/10.1016/J.PAID.2017.10.036>
- Batson, C. D. (2009). These things called empathy: Eight related but distinct phenomena.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 3-15). Boston Review. <https://doi.org/10.7551/mitpress/9780262012973.003.0002>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https://doi.org/10.1037/0033-295x.103.1.5>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https://doi.org/10.1111/j.1467-6494.1989.tb02384.x>
- Blitstein, J. L., Murray, D. M., Lytle, L. A., Birnbaum, A. S., & Perry, C. L. (2005). Predictors of violent behavior in an early adolescent cohor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2), 175-194. <https://doi.org/10.1177/1090198104269516>
- Brownell, C. A., Ramani, G. B., & Zerwas, S. (2006). Becoming a social partner with peers: Cooperation and social understanding in one- and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77(3), 803-82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6.00904.x>
- Chandler, M. J. (1974). *Accurate and accidental empath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ouisiana.
- Crocetti, E., Van der Graaff, J., Moscatelli, S., Keijsers, L., Koot, H. M., Rubini, M., Meeus, W., & Branje, S. (2016).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s: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empathy. *Frontiers in Psychology*, 7, 1726. <https://doi.org/10.3389/fpsyg.2016.01726>
- Davis, M. H. (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De La Ronde, C., & Swann, W. B.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Positivity and self-verification strivings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147-165). Boston: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84-8956-9_8
- Decety, J., & Cowell, J. M. (2014). Friends or foes: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 behavior?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9(5), 525-537. <https://doi.org/10.1177/1745691614545130>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https://doi.org/10.1111/j.0956-7976.2005.01535.x>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71121>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ebach, A. (2019). Social cognition, empathy and agent-specificities in cooperation. *Topoi*, 38, 163-172. <https://doi.org/10.1007/s11245-017-9480-x>
- Gilbert, M. (2009). Shared intention and personal intentions. *Philosophical Studies*, 144, 167-187. <https://doi.org/10.1007/s11098-009-9372-z>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eilbrun, A. B. (1981). Gender differences in the functional linkage between androgyny,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6), 1106-1118.

- <https://doi.org/10.1037/0022-3514.41.6.1106>
- Kahle, L. R., Kulka, R. A., & Klingel, D. M. (1980). Low adolescent self-esteem leads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A test of social-adapt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96-502. <https://doi.org/10.1037/0022-3514.39.3.496>
- Myers, D. (1980). *The inflated self*. New York: Seabur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https://doi.org/10.1016/S1359-1789\(00\)00012-4](https://doi.org/10.1016/S1359-1789(00)00012-4)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https://doi.org/10.1007/BF03395534>
- Swann, W. B., Griffin, J. J., Predmore, S. C., & Gaines, B. (1987). The cognitive-affective crossfire: When self-consistency confronts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81-889. <https://doi.org/10.1037/0022-3514.52.5.88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https://doi.org/10.1037/0033-2909.103.2.193>
- Teng, Z. J., Liu, Y. L., & Guo, C. (201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1, 45-54. <https://doi.org/10.1016/j.avb.2015.01.005>
- Tice, D. M. (1991). Esteem protection or enhancement? Self-handicapping motives and attributions differ by trai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11-725. <https://doi.org/10.1037/0022-3514.60.5.711>
- Tice, D. M. (1993). The social motivations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37-53). Boston: Springer.
- Whitley, B. E. (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765-778. <https://doi.org/10.1037/0022-3514.44.4.765>